

시선

사설

법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

새내기들의 힘찬 새 출발로 캠퍼스가 들썩인다. 일부 단과대학의 신입생은 새 건물의 첫 주인이 되는 호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시기에 찬 물을 끼얹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대학의 운영주체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다. 대학은 등록금수입과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스스로 벌어들인 수익과 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등으로 운영된다.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등록금 수입이지만, 법률은 대학의 운영주체이자 교직원들의 고용주체인 법인에게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이를 법이 정한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이라 하며 교직원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주를 이룬다.

2012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법인은 법정부담전입금의 100%를 부담해왔다. 이것은 2014년 65.2%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재정문제가 원인이었다. 지난해 까지도 법정부담전입금은 60%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20억 원 가량이 더 줄어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법인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법인이 최소한의 책무인 법정부담전입금마저 채우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는 오롯이 대학이 충당할 수밖에 없다. 2014년에는 35억 원 가량이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법 조항에 따라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교직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올해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학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변함이 없다.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채우지 못하기도 했수로 5년을 넘여왔다. 그간 우리 신문이 법인에 술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상황의 개선을 타진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다.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위험한 투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도 클 수 없다’, ‘법인도 꾸준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등이다.

속 시원히 공개라도 한다면 또 모를까, 법인이 어떤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몇 년째 이어지는 적자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2015년 ‘경희메니지먼트컴퍼니’가 위탁운영 업체를 상대로 벌인 법정공방처럼 문제가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구성원은 수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방도가 없다.

대학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가깝게는 당장 입학금 감축이 시작됐다. 몇 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당장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인산형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수십 억 원을 못 받았다고 대학이 한 순간에 파산하는 일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 문제는 신뢰다. 피고용자의 연금과 보험료를 책임지지 못하는 고용주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법정부담전입금의 빈자리를 학생의 등록금으로 메우게 하는 학교법인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모든 구성원이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인도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학은 지금

학교와 청소년노동자 갈등 끊이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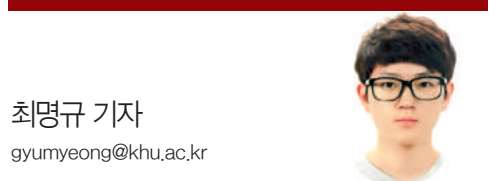
대학가에도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대학가도 ‘미투(MeToo)’ 운동 확산…그 이후는 어떻게?/한국대학신문, 2018.02.14) 서지현 검사의 성희롱 고백으로 인해 확산된 운동은 그간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성추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대학 내 성추문은 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비롯한 SNS를 통해 고발되는 중이다.

‘미투(MeToo)’ 운동으로 인권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서울대에서는 단과대학별로 ‘새맛이 장기 자랑 강요 FREE 릴레이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마셔 마셔~ 내 발로 기어라?’ 서울대 ‘강요 FREE 선언’/중앙일보, 2018.01.25) 사회과학대학, 미술대학을 비롯한 11개의 단과대학이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신입생들의 장기자랑을 폐지하겠다는



이 주의 주제 - 화재 안전

모두의 노력, 모두의 안전



‘인생은 한방.’ 누군가 무너지기 전 벽에 써놓았던 이 글귀가 부서졌을 때 우린 그저 ‘웃플’뿐이었다. 지난해 가을 한방재료공학과 학생회실 벽이 붕괴됐다. 평소보다 조금 많은 가을비를 이겨내지 못했다. 당시 사고현장에 사람이 없었던 것은 우연이 낳은 다행이었다. 마침 그날은 축제 기간으로 모두 나가 있었다. 화재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여름 공과대학 연구실에서 불이나 소방차가 학교를 찾았다.

울겨울 잇따른 화마 속에서 인간은 단 한줌의 재로 사라질 뿐이었다. 제천스포츠타워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는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다. 이 두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원인은 열린 방화문 등 기초소방시설 부실관리였다. 비단 제천과 밀양뿐만이 아니었다. 이번 화재참사 이후 이뤄진 다중이용업소 6만여 곳 안전점검에서도 어김없이 소방시설 부실관리가 그 민낯을 드러냈다.

이에 우리 신문도 소방법을 기준으로 화재안전 자체조사에 나섰다. 결과는 놀라웠다. ▲방화문이 닫혀 있었는지 ▲노후된 소화기는 없는지 ▲완강기·대피로·소화전 앞에 적치물이 없었는지와 관련해 모두 위반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방화문은 열린 채 방치 돼 있었고, 내용연수를 초과한 소화기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화재 시 초기 진압과 피난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기·대피로·완강기 앞에는 적치물로 다가가갈 수도 없었다. 이들 모두는 소방법 위반행위이다. 증언도 이어졌다. 행정실 과장 A 씨는 “평화의 전당에서 화재경보기 고장 민원이 들어와 직접 가보니 잦은 오작동으로 경보기 다수를 꺼놓은 상태였다”며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곳에서 조차 화재안전이 담보돼 있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학교에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우리 자신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전은 결코 쉽게 보장되지 않는다. 안전불감증을 벗어 나기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하나 둘씩 모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 진부한 주장이지만 기초가 지켜지지 않으니 다시금 강조해야한다. 이번엔 목격된 실태 다수는 불편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우리가 놓친 우리의 안전이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조차 불감한 상황이었다.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소화전 앞에는 초기진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작은 관심과 행동이 있으면 된다. 작은 노력이 모일 때 곁에서 항상 기회를 엿보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수 있다. 그 작은 노력마저도 포기한다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을 뿐이다.

조연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주인공

세시봉

박지영 <편집장>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던 평창 올림픽에서 이슈는 단연 ‘염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염미뿐 만은 아니었다. 은메달을 따고도 웃을 수 없었던 김보름 선수가 있다. 2월 19일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진짜 논란은 그 후에 일어났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보름 선수는 뒤처진 노선영 선수를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과 함께 인터뷰 중간 ‘뽐’하며 웃기도 했다. 순식간에 비난의 화살은 김보름 선수를 집어 삼켰다.

빙상연맹은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백철기 감독은 “노 선수의 의견을 수용했던 것이며, 경기 당시 응원 소리에 지시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책임 없는 발언만을 했다. 그 자리에서 타깃은 김보름 선수뿐이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상기시켜보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번 일의 가장 큰 책임은 파벌형성과 선수 밀어주기를 주도한 빙상연맹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일련의 기자회견과 사과에서 빙상연맹의 책임은 쏙 빠져있었다. 방패막이로 쓰인 것은 김보름 선수였다. 물론 잘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패막이로 쓰여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였다.

주인공이 숨다보면 피해자는 사회가 된다

이제 이런 전개는 불편하다 못해 불쾌하다. 이런 식의 꼬리 자르기는 비단 이번 사태뿐 만 아닌,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제일 손쉬우면서도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극의 위기가 다가오면 늘 무대 뒤에 숨어서 다음 공연을 기다린다. 피해자가 되는 것은 늘 애꿎은 조연들이다. 한껏 비난의 화살을 맞고 나선 버려지거나,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퇴장해버리고 만다.

결국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진짜 주인공들은 일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그동안 해왔던 악습을 답습한다. 조금 더 영악해지고,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상처는 원래 없었던 것인 양 말짱히 생활한다. 그러나 상처는 치료되지 않고 속에서 끓어갈 뿐이다.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알아채기에 우리는 각자도생하기에도 너무 바쁘다.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방법은 하나다. 모두가 상처를 들추고, 찢고, 터뜨려 치료받는 것. 숨기거나 은폐하지 말고 당사자가 직접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자신의 잘못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고쳐나가고 노력하는 모습에 누가 침을 뱉을 수 있으랴.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박지영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레미레)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